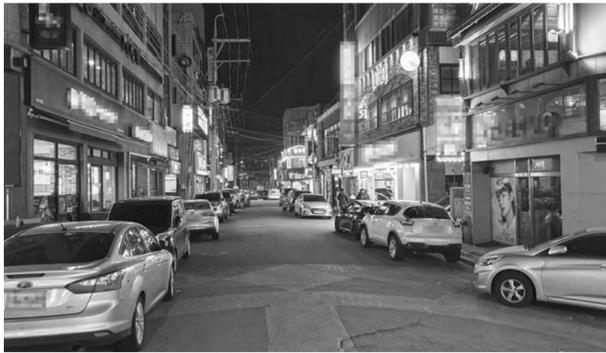


■ 르포 /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 발표날, 제주시 상가 가보니...

거리는 손님 없어 '헿'... 업주는 '한숨'만

제주시청 학사로 일대
오후 7시에도 생기 없어
누웨모루거리도 적막
관광객 모습 자취 감춰
업주들 "빛 내면서 버터
매일 장사그만둘까 고민"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 발표된 지난달 31일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가 사람이 가장 붐비던 시간대인 저녁 7시쯤에도 인적이 끊겨 한산하기만 하다. 강민성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일대는 일요일 저녁인데도 한산했다.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사람들로 붐볐을테지만 생기를 잃은 듯 적막감이 흘렀다. 설명 음식점에 손님이 있다라도 1~2개 테이블이 고작이었다. 가게도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았다. 가게 앞에는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쉽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시청 주변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배달비와 배달의 민중 등 수수료도 만만찮고, 매출도 절반 이상 줄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회의를 안고 시작한 장사였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이 너무 심하다며 울상이다. 장사를 시작하지 10년차에 접어드는 그는 장사를 그만둘까 매일같이 고민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대출로 지금까지 버텨지만 이젠 한계다"라며 "인근 상권에 장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 임대료를 내주는 것도 경쟁이 돼버렸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시청 일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자체 휴업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장사도 안되는데다 임대비

와 가게세가 워낙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술집은 저녁부터 연다. 그런데 오후 6시에 열어도 9시가 되면 영업을 불가능해 겨우 3시간밖에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사를 못해도 가게세와 대출비는 주기적으로 내야 하기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다"며 "밤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오후 9시 제주시 연동 누웨

모루 거리도 한산했다.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로 가득차야 할 거리에는 사람이 뜸했다. 인근 식당에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내보내고 있었고, 일부 음식점에선 포장 음식을 준비 중이었다. 음식이 담긴 비닐을 뒷좌석에 맨 채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자주 목격됐다. 영업을 마친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카페에서 음료수를 먹던 손님들도 테이크 아웃 전으로 바꾸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누웨모루 거리에서 31년동안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C씨는 "코로나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장사 시간을 변경해 새벽부터 열어 봤지만 허사였다. 사람이 너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대출을 받아 올해 가게세를 마련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설 대목마저 놓칠까봐 속이 탄다"고 울상을 지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와 제주도는 소상공인 생업 곤란 등의 문제로 1주일 뒤 확진자 양상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유지·완화 여부를 논의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 1명 발생

일본→한국→제주 입도
이날 기준 확진자 523명

제주지역에서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1시쯤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523명으로 늘었다.

523명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그날 오후 9시쯤 제주에 입도했다.

523명 확진자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튿날까

지 자가 격리 장소에 머물다가 이날 오후 1시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523명 확진자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이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도방역당국은 523명 확진자가 입도 즉시 공항 워크스루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한 점을 미뤄볼 때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제주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해경 헬기와 특공대원들이 1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동쪽 갯바위에서 좌초돼 고립된 채류기 어선 A(6.30)호의 선원들을 호이스트를 이용해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산일출봉 해안서 6t급 어선 좌초

해경, 선원 5명 전원 구조
대원 2명 구조 과정서 다쳐

성산일출봉 인근 해역에서 좌초한 어선의 선원 5명이 일출봉 갯바위에 고립됐다 14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1일 오후 9시27분쯤 성산일출봉 남동쪽 해안에 좌초된 성산선적 어선 A(6.31t)호에 타고 있던 선장 B(51)씨 등 5명을 헬기를 이용해 모두 구조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이 좌초되자 갯바위로 옮겨가 해경의 구조를 기다렸다.

해경은 이날 13시간에 걸쳐 보트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사고 현장에 암초가 많고 높은 너울성 파도로 접근이 어려워 헬기를 투입, 현장에 고립됐던 선원들을 구조했다.

그러나 앞선 구조과정에서 보트가 높은 파도에 전복되면서 구조대원 2명이 갯바위에 부딪쳐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백규탁기자

오토바이 안전운행 '빨간불'

지난해 제주소방서 관내
346건... 올 1월 20건 발생
주문 배달 증가 영향 한 몫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오토바이 안전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1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제주시 영평동 인근 교차로에서 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29일에는 제주시 아라1동 도로상에서 오토바이가 유탄하던 차량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면부 등에 열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

이들 오토바이는 사고당시 배

달을 하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최근 몇년중 최대치를 기록중인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소방서 관할구역내 오토바이 사고발생 건수는 2018년 307건에서 2019년 333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해에는 346건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월말 현재 오토바이 사고는 20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수치는 작년 18건과 재작년 16건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오토바이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30대 징역 3년6개월형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9차례에 걸쳐 B(당시 14세)양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B양을 소개받아 옷·물품·숙소 등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다.

성매매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2차례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켜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강민성기자

"외국인도 무료 접종해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코로나 무료 접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외국인 대상 코로나 전수검사를 시행한다는 제주도가 전 도민 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외국인은 제외시켰다"면서 "이는 명백한 외국인 혐오이고 차별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외국인의 백신 제외 조치는 "정차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는 방역대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방역 공백을 양산해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인식과 행위일 수밖에 없다"면서 백신은 지역내 모든 사람들에게 투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메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감소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해충물결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9종

PAA
영양전력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락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Y.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